

# 증권

산업이슈 브리프 |

## Check Point

- 거래대금 및 증시주변자금 흐름 개선
- 1Q 브로커리지, 운용이익 회복 예상
- 업황은 바닥 통과. 유동성 여건 개선 기대

## 지표는 완연한 반등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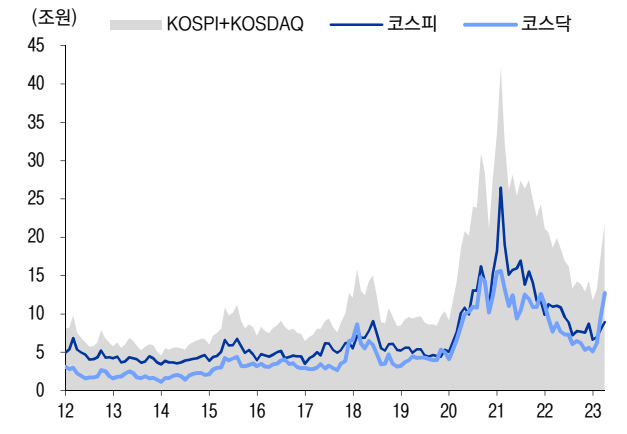
### 3월 업황지표 반등

- ▶ 3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21.7조원으로 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상회. 1월 13.1조원, 2월 17.6조원에 이어 3월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1분기 평균으로는 17.5조원을 기록해 지난 4분기 대비 35% 큰 폭으로 증가
- ▶ 거래대금 증가는 개인자금의 증시유입과 회전을 증가에 기인. 3월 중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15.2조원으로 1~2월 평균 10.1조원, 22년 연평균 10.5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에 지난해 65% 수준에 머물렀던 개인의 거래비중 역시 3월 들어 70%를 상회. 코스닥 시가 총액 회전율은 연초 400%를 하회하며 역사적 저점 구간에 머물렀으나 최근 800%대로 급반등
- ▶ 증시 주변자금 흐름 역시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연초 44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던 고객예탁금은 3월말 기준 49조원까지 반등. 신용잔고 역시 18.5조원으로 연초 대비 2.5조원 가량 상승하면서 개인자금의 증시유입 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1분기 실적개선 전망. 업황 바닥구간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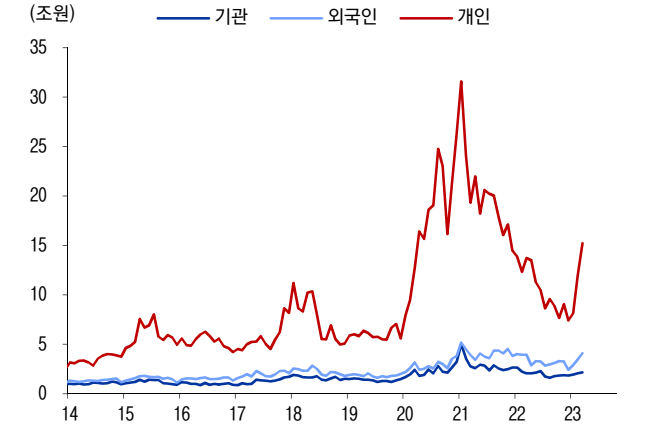
- ▶ 연초 이후, 특히 3월 들어 업황지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을 중심으로 실적개선 기대. 신용이자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이자율 인하압박과 향후 예탁금 이용률 변화 가능성 감안하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임
- ▶ 운용이익의 경우 2~3월 금리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채권관련 손익은 기대치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ELS 역시 조기상환 구간에 진입하면서 주식관련 운용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 참고로 주요국 증시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3분기에도 조기상환이 가능
- ▶ 실질 유동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업종전반에 대한 우려가 여전. 최근 이슈가 불거진 해외 은행권처럼 투자자산 관련 추가적인 손실인식 가능성 또한 상존. 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분양 증가세 또한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황은 바닥구간을 통과한 상태로 판단

그림1 일평균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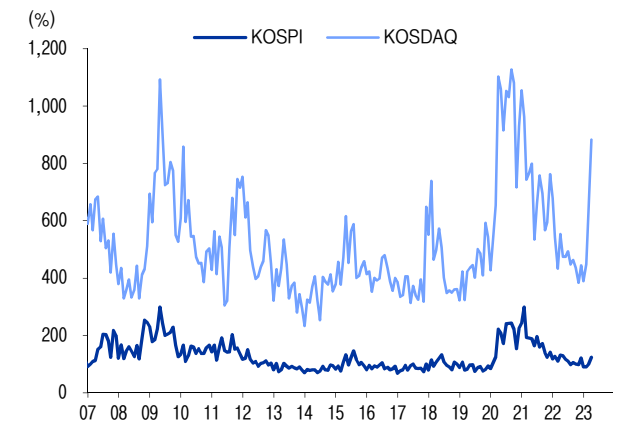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투자주체별 거래대금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을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고객예탁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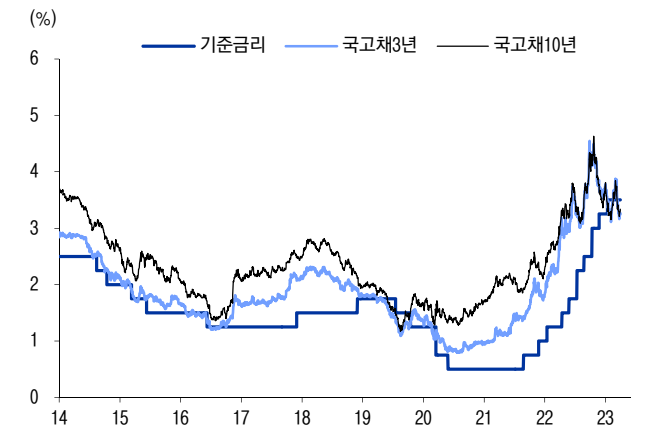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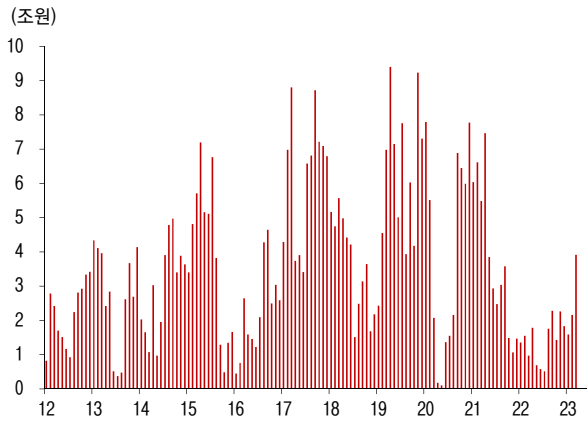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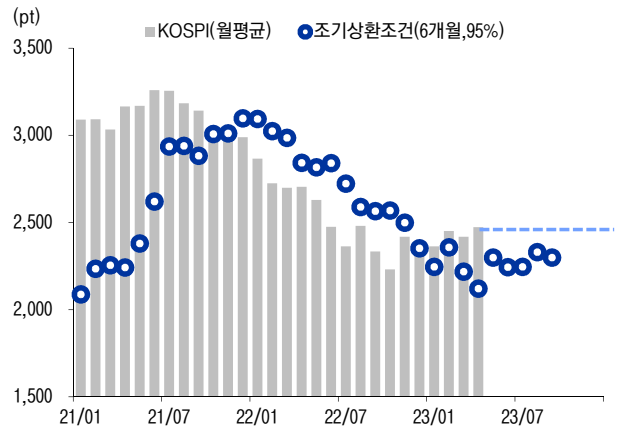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월별 ELS 조기상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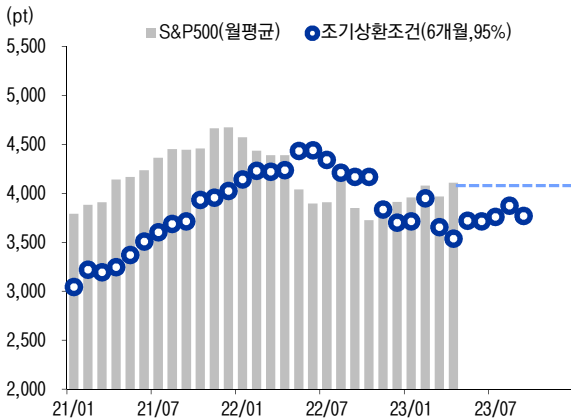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KOSPI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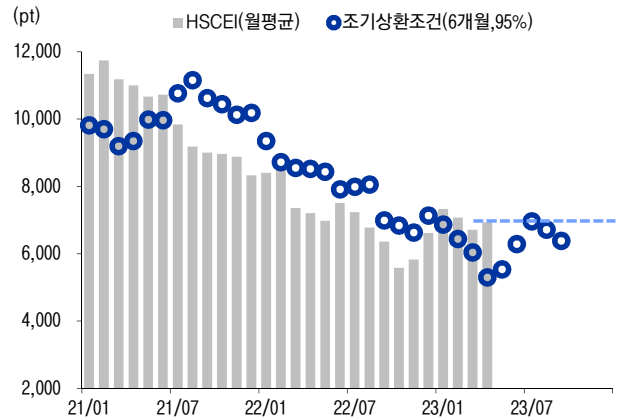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S&P 500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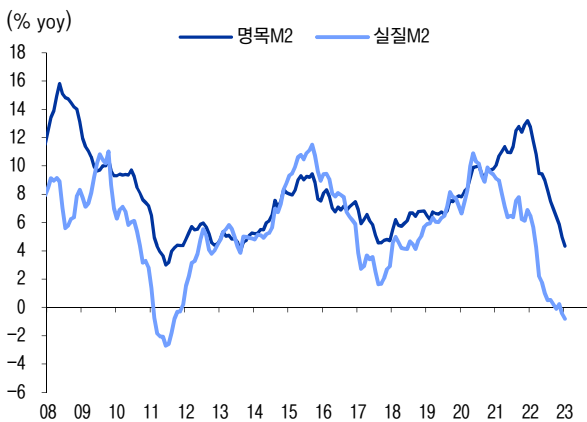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HSCEI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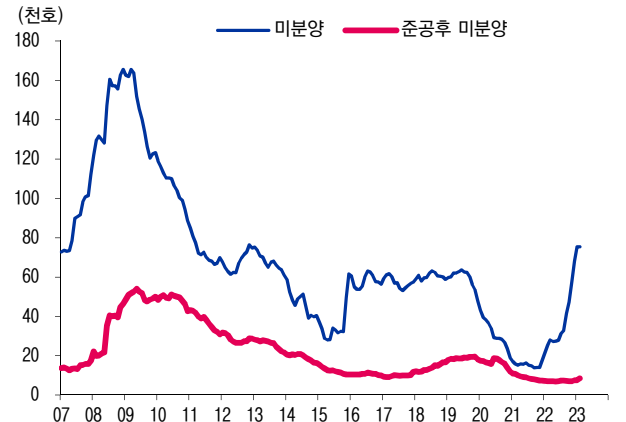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명목 유동성과 실질 유동성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b>Sector</b>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b>Company</b>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3% 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20%에서 ±15%로 변경
		<b>합계</b>		<b>100.0%</b>	투자의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